

계시록 21 장

우리의 새 주소

계시록 21:1

우리는 이제 시간의 영역을 지나 영원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천 년 통치가 시간을 나타내는 마지막 표시였다.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영원이 시작된다. 모든 것은 이제 영원무궁하다.

요한은 말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21:1)

베드로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며, 땅과 온 우주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벧후3:10-13)고 했다.

이사야서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사65:17)라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서에 있는 ‘창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bara)’인데, 창세기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사용되었음이 흥미롭다. ‘바라(bara)’는 히브리어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에도 ‘바라(bara)’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 창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것(아사, asah)”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완전한 새 창조임을 나타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

현재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과 바다와 대양으로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왕국의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바다와 그 소금이 하는 일은 오염된 물을 모아서 정화시켜 땅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새 땅에서처럼 더러운 오염된 물이 없는 곳이라면 바다도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당신이 배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계시록 21:2-7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21:2-4)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왕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은 한번에 쫓겨나고, 모든 우주만물은 하나님께 속한다. 빛과 생명이신 한 분 하나님, 하나의 권세, 하나의 통치, 하나의 지배가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되겠는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1:5-7)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25:34). “모든 것을 상속하라.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실 것이다. 변화된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를 거닐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런 우주의 광활함을 마음껏 탐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시록 21:8-10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21:8)

새 예루살렘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으셨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손해볼 것이 무엇인가?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데도 당신은 도박을 하겠는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21:9-10)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 새 거주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이 곳은 교회가 거하게 될 성이기도 하다.

계시록 21:11-12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 준 큰 성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21:11-12)

열들이라는 숫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숫자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사람들)와 교회가 거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11:13, 10)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사야 등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 즉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였다. 이 성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성을 바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이 곳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있다.

이 성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는 큰 성벽이 있다. 그리고 이 열두 개의 문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또 각 문마다 천사가 서 있다. 천사는 당신이 그 문으로 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환영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환영합니다!”

계시록 21:13-21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성곽에는 큰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러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 (약 1,500마일) 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21:13-16)

이 성은 3.3억 입방 마일이 넘는다. 어떤 성이(약 140억 킬로미터) 이렇게 크겠는가!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달의 크기와 비슷하다. 물론 달은 원형이고, 새 예루살렘은 입방체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입방체로 된 천체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천체를 왜 원형으로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은 입방체로 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달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이 지구 둘레를 돌지 모른다.

우리가 이 성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아마 마천루(거대한 큰 빌딩)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 1입방 마일(1.6킬로미터)에서 산다면 하늘 나라에는 인구 33억 이상이 살 수 있다. 인구 밀도를 좀더 높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다.

언젠가 어떤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 충분한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별을 가지라! 모든 사람이 자기 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별이 있다. 수십억 개의 은하수가 있는데, 각 은하수에는 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이는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지으시는 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러 가신 성이다. 당신이 그 성에 가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너를 만나 기쁘구나! 너를 위해 예비된 장소를 보여 주마!”

이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흥분되는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다. 인간이 아직 오염시키지 않은 하와이의 어떤 곳은 정말로 멋지다. 캘리포니아에도 큰 감동을 주는 멋진 장소들이 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약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곳은 어떨겠는가!

하늘 나라의 설계도이다. 요한이 그 성곽을 척량해 보았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약 200피트 높이=약 66미터)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21:17)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이다. 그리고 한 뼘은 엄지 손가락에서 새끼 손가락까지를최대로 벌린 폭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측량했다.

그 성곽은 벽옥 (다이아몬드 같이 투명한 보석) 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21:18)

“맑은 유리 같다”는 말은 금이 너무나 순수해서 투명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금을 정제해도 그렇게까지순수한 정금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21:19-20)

이 보석들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흉패에 달았던 것이다. 벽옥으로 쌓인 성곽과 그 성곽의 기초석인 이 아름답고귀중한 보석들을 상상해 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21:21)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은 네 돈이 필요하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알 수 있다. 이런 성을 지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없으시다. 당신의 돈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에게 주면, 믿지 못할 정도로 네게 부여 주리라!”

계시록 21:22-27

성전이 어디 있나 둘러보고 요한이 말한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21:22)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21:23)

모든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출 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보라. 온 성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금빛 거리로 빛날 것이다. 그 밝음과 화려함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조명 시스템이 있다.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이 진주빛으로 환히 비추어진다. 지구에서 이 거룩한 성을 올려다 본다면 굉장하 아름답을 것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새 예루살렘은 땅에도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인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21:24 -25)

고대 도시에는 문이 있는 성곽이 많이 있었다. 성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으므로 밤에는 성문을 닫았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또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사람들이 (땅의 왕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21:26- 27)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할 권리가 있다. 얼마나 복된가!

